

동·서양 문명의 교류와 순환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체제 및 내용분석*

박 재 영**

목차

- I. 머리말
- II. 세계사 교과서 서술 체제 분석
- III. 세계사 교과서 내용 분석
- IV. 맺음말

I. 머리말

인류는 다양한 지역적,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 정치·사회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문명을 계승·발전시켜왔다. 다양한 인류의 문명은 아직도 각 지역별 문명의 특색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의 교통·통신·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그 경계가 점점 무너져가며, 전 인류가 하나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1053851).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연구교수

의 문명권으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현대 문명의 통합 현상은 일방적인 문명의 전달이 아니라 각 문명의 교류와 상호 영향이 문명의 순환성을 매개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문명의 교류와 순환은 현대에 이르러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미 고대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민족과 이동과 문화의 교류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교류는 고대 이후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문명의 전파와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서부와 동부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어갔다.

문명의 전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는데, 첫째로 민족의 이동, 둘째로 전쟁, 셋째로 문명 간의 교류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민족의 이동은 문화의 전체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쟁은 정복을 통한 이질적인 문명의 강제적 수용과 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류는 문명 간에 결여된 것들을 교류하고 수용하여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문명 전파라는 차원에서 절대적인 조건이며,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하여 동·서양 문명은 상호 간의 상승작용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동·서양 문명에 흔재되어 나타나는 문명의 순환적 요인들의 유산으로 증명되고 있다.

문명의 교류와 순환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문명의 교류와 순환성으로 인한 문명들의 상승 작용에 대한 이해가 각 지역적 문명들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학적 연구가 아니라 인문학적 연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며, 동시에 인문학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질적 문화의 수용과 흡수에서 비롯되어 발전된 각 문명들의 현재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 지역의 문명들이 하나의 세계 문명으로 통합되는 과정이 진행 중인 현대 사회에서 이질적 문명에 대한 배타적 편견과 문명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의 제공을 통해서 가능하다. 바로 여기에 왜곡되고 굴절된 타 문명(문화·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인지사학적인 연구의 효용이 있는

동·서양 문명의 교류와 순환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체제 및 내용분석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 연구들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위와 같은 기본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¹⁾의 체제와 내용을 동·서양 문명의 교류와 순환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과 교류는 그것이 ‘초원의 길’이든, ‘비단길’이든, ‘바닷길’이든 ‘길’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이 ‘길’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지구촌 사회가 하나의 통합된 문명권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머리말에 이은 제2장에서는 세계사 교과서의 단원 구성과 서술 체제상의 특징을 파악할 것이며, 제3장에서는 문명의 교류와 순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이슬람 상인의 상업 활동, 몽골 제국의 교역로, 신허로의 개척 이후 세계 교역망의 통합 관련 내용의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맺음말에서는 문명의 교류와 순환의 시각에서 볼 때,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체제와 내용이 그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가를 논해 보고자 한다.

II. 세계사 교과서 서술 체제 분석

먼저,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관련 연구 경향을 일별해 보면, 세계사 교과목의 특성 및 내용 분석 및 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1) 본 연구에서는 2011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정을 통과한 3종(더텍스트, 교학사, 금성출판사)의 교과서와 2013년 8월 검정을 통과한 2종(비상교육, 천재교육)의 교과서가 분석 대상이다. 강택구 외 5인, 『고등학교 세계사』, 더텍스트, 2011; 최상훈 외 7인, 『고등학교 세계사』, 교학사, 2013; 김형종 외 5인, 『고등학교 세계사』, 금성출판사, 2013; 조한욱 외 5인, 『고등학교 세계사』, 비상교육, 2014; 김덕수 외 7인, 『고등학교 세계사』, 천재교육, 2014.

있다.²⁾ 여기에는 지금까지 세계사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유럽 중심, 중국 부중심’의 교과서 내용구성이 포함된다.³⁾ 제7차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는 서술 체제와 내용구성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다가⁴⁾, 최근에는 지구사적 관점에서 세계사 교과서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⁵⁾

〈표 1〉 세계사 교과서의 지역적 범위 확대

교육과정	지역적 범위
제1차 교육과정	오리엔트문명, 중국, 일본, 유럽(그리스, 로마, 지중해 문명), 인도, 이슬람세계
제7차 교육과정	오리엔트문명, 중국, 일본, 유럽, 이슬람세계, 정복왕조,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비잔틴제국, 인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표 1〉에서와 같이,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세계사 교과서

- 2) 강선주, 『세계화시대의 세계사교육: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한 내용구성』, 『역사교육』 82, 2002; 강선주, 『문화적 접촉과 교류의 역사』의 내용선정 방안, 『역사교육연구』 3, 2006;
- 3) 강선주, 『유럽중심주의의 담론을 통해 본 역사교육의 과제』, 『역사교육』 131, 2014; 강철구, 『한국에서 서양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 유럽중심주의의 극복을 위한 제언 -』, 『서양사론』, 제92호, 2007; 양호환, 『역사교과서의 서술과 유럽중심주의』, 『역사교육』 117, 2011; 이영호, 『세계사교육에서 ‘타자읽기’: 지구중심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를 넘어』, 『역사교육』 86, 2003.
- 4) 구난희, 『세계사 교육과정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역사교육』 제93집, 2005, pp.109-110.
- 5) 김원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세계사 글로벌 히스토리(Global History)와 역사들의 지평을 넘어서』, 『서양사론』, 제92호, 2007; 김원수, 『역사교육의 전지구적 전환: 새로운 세계사의 전개』, 『역사교육연구』 15, 2012; 남철호, 『글로벌 히스토리(Global History)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세계사』, 『계명사학』 22, 2011; 박혜정, 『하나의 지구, 복수의 지구사』, 『역사학보』 214, 2012; 임지현, 『‘지구사’ 연구의 오늘과 내일: ‘지구적 차원에서 지구사’를 학술대회를 다녀와서』, 『역사비평』 83, 2008; 정선영, 『지구적 시각에 기초한 세계사 교육에의 접근방안』, 『역사교육』 85, 2003; 조지형, 『새로운 세계사와 지구사: 포스트모던 시대의 성찰적 역사』, 『역사학보』 173, 2002.

동·서양 문명의 교류와 순환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체제 및 내용분석
 가 다루고 있는 지역적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⁶⁾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오리엔트문명, 중국, 일본, 유럽, 인도, 이슬람
 세계 등 5개 지역에 대한 역사가 다루어졌지만, 제4차 교육과정에서
 는 동남아시아,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비잔틴 제국, 제6차 교육과정
 에서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정복왕조
 와 우리나라,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오세아니아가 추가되어 세계
 사의 지역적 범위가 지구상의 모든 대륙으로 확대되었다.⁷⁾

〈표 2〉 분석대상 교과서

집필자	교과서	출판사	교육부 검정	출판년도	단원수	쪽수
강택구 외 7인	고등학교 세계사	더텍스트	2011(전시본)	2011	8단원	296쪽
김덕수 외 7인	고등학교 세계사	교학사	2011.08.19	2013	8단원	343쪽
김형종 외 5인	고등학교 세계사	금성출판사	2011.08.19	2013	8단원	400쪽
조한옥 외 5인	고등학교 세계사	비상교육	2013.08.30	2014	7단원	304쪽
최상훈 외 7인	고등학교 세계사	천재교육	2013.08.30	2014	7단원	351쪽

본 연구자는 분석 대상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를 <표 2>와 같이 5종
 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는 2011년 8월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더텍스트
 (전시본)>, <교학사>, <금성출판사> 교과서⁸⁾ 및 2013년 8월 교육부 검정

6) 신유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내용구성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역사교육논
 집』 제54집, 2015, pp.84-86.

7) 같은 논문, pp.84-85.

8)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2011년 교과용도서 검정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합격본
 은 교학사,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더텍스트 4종이다.

(<http://www.history.go.kr/board/boardDetail.do?groupId=000000000303&menuId=00000000496&pageId=00000000016&itemId=&action=%2Fboard%2FboardList.do&siteIndex=43&condition=&keyword=&category=&totalCount=46&page=5&rowPerPage=10&searchKeyword=>)

을 통과한 <비상교육>, <천재교육>가 포함된다.⁹⁾ 위와 같이 분석 대상 교과서를 선택한 이유는 2011년 교육부 검정본과 2013년 검정본 세계사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과 단원 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1년 검정본이 8단원으로 구성된 데 비하여 2013년 검정본은 7단원으로 단원 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분석 대상 교과서의 체제 및 내용 구성의 공통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사 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둘째, 중학교 역사와의 계열성을 염두에 두고, 고등학교 <한국사> 및 <동아시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심화된 자료와 다양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 셋째, 단원 도입 부분에는 단원 개관, 중단원 개요, 학습 목표 등을 두어 학습 방향과 학습 목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각 단원과 주제의 학습 목표 및 제시된 자료의 특성에 맞는 탐구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다섯째, 사진, 그림, 지도, 도표 등과 도움 글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하였다. 여섯째, 세계사는 동양과 서양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상호 간에 문명을 발전시켜왔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류사를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는 지역 내의 상호 접촉에서 지역 간의 상호 접촉으로 변화해 가면서 역사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의 목차는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원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

9)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2013년 고등학교 역사과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공고(국사편찬위원회 공고 제 2013-9호)를 보면, 천재교육, 교학사, 비상교육, 금성출판사에서 신청한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4종이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동·서양 문명의 교류와 순환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체제 및 내용분석

다. 단원 구성은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세계사 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 의거하고 있으며, 분석 대상 교과서의 목차를 비교해 봄으로써 각 교과서의 체제와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출판사 별 세계사 교과서 단원 구분

교과서	출판사					
	더텍스트 (2011)	교학사(2013)	금성출판사 (2013)	비상교육 (2014)	천재교육 (2014)	
단원 명	I	역사와 인간	역사와 인간	역사와 인간	역사와 인간	역사와 인간
	II	도시문명의 성립과 지역 문화의 형성	도시문명의 성립과 지역 문화의 형성	도시문명의 성립과 지역 문화의 형성	문명의 성립과 통일 제국	문명의 성립과 통일 제국
	III	지역 문화의 발전과 종교의 확산	지역 문화의 발전과 종교의 확산	지역 문화의 발전과 종교의 확산	지역 세계의 재편과 성장	지역 세계의 재편과 성장
	IV	지역 경제의 성장과 교류의 확대	지역 경제의 성장과 교류의 확대	지역 경제의 성장과 교류의 확대	지역 세계의 통합과 세계적 교역망	지역 세계의 통합과 세계적 교역망
	V	지역 세계의 팽창과 세계적 교역망의 형성	지역 세계의 팽창과 세계적 교역망의 형성	지역 세계의 팽창과 세계적 교역망의 형성	서양 국민 국가의 형성과 산업화	서양 국민 국가의 형성과 산업화
	VI	서양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산업화	서양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산업화	서양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산업화	제국주의의 침략과 민족 운동	제국주의의 침략과 민족 운동
	VII	제국주의의 침략과 민족 해방운동	제국주의의 침략과 민족 운동	제국주의의 침략과 민족 운동	현대 세계의 변화	현대 세계의 변화
	VIII	현대 세계의 변화	현대 세계의 변화	현대 세계의 변화		

〈표 3〉을 보면, 출판사 별 교과서 단원 구성을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11년 검정본 교과서(더텍스트, 교학사,

금성출판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인류의 출현부터 현재까지의 세계사가 8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2013년 김정본(비상교육, 천재교육) 교과서는 7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1년 김정본의 제4단원 <지역 경제의 성장과 교류의 확대>와 제5단원 <지역 세계의 팽창과 세계적 교역망의 형성> 두 개 단원이 2013년 김정본에서는 제4단원 <지역세계의 통합과 세계적 교역망>으로 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원 구성이 변화에 따라 중단원, 소단원의 구성 또한 달라지게 되었는데, <표 4>는 2011년 김정본과 달라진 2013년 김정본의 IV·V 단원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지역 세계의 통합과 세계적 교역망 관련 단원 구성(IV·V단원 비교)

교과서	출판사				
	더텍스트(IV·V)	교학사(IV·V)	금성출판사(IV·V)	비상교육(IV)	천재교육(IV)
단 원 IV	1.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 1) 송의 변진과 경제·문화적 성장 2) 북방민족의 성장과 정복 왕조 3) 고려와 일본의 발전 4) 동아시아 교역권의 형성	1.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교역 1) 동아시아의 정치 변동 2)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 3) 동아시아 교역권의 등장 4) 동아시아 사회의 문화 발달	1. 동아시아 세계와 경제 성장 1) 송의 발전 2) 북방 민족의 대두 3) 고려와 일본 4) 동아시아 교역권의 등장 2. 몽골 제국과 동서 교역망의 통합 1) 칭기즈 칸과 몽골 제국 2) 몽골 제국의 동서 교류	1. 동아시아 세계의 변화와 교역 1) 명·청 제국의 발전 2) 명·청 제국의 경제와 사회 변화 3) 조선과 에도 막부의 변화 4) 동아시아의 국제 교역과 문화교류	1. 동아시아의 발전 1) 명·청의 건국과 발전 2) 명·청의 사회와 경제 3) 명·청의 사상과 문화 4)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2. 이슬람 세계의 확대 1) 이슬람 세계의 변천과 경제·문화적 성장 2) 이슬람 세계의 확대 3) 인도양과 사하라 횡단 교역권의 형성	2. 이슬람 세계의 교역 확대 1) 이슬람 세계의 확대 2) 이슬람 상인의 활약과 인도양 교역권 3) 사하라 횡단 교역	3. 이슬람 세계의 확대와 교역 1) 셀주크 튀르크와 아프리카의 이슬람화 2)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이슬람화	2. 인도와 동남아시아 세계의 발전 1) 무굴 제국의 발전 2)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발전 3. 서아시아 세계의 발전 1)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 2) 오스만 제국	2. 인도와 서아시아 세계의 발전 1) 이슬람 세계의 새로운 지배자, 튀르크 2) 무굴 제국의 성립과 발전 3) 지중해의 새로운 강자, 오스만 제국 4) 사파비 왕조의 성립과 발전
	3.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와 지중해 교역 1) 봉건제의 발달 2) 봉건 국가의 발달	3. 유럽의 경제 성장과 지중해 교역			

동·서양 문명의 교류와 순환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체제 및 내용분석

	<p>과 중세 문화</p> <p>3) 십자군 원정과 유럽 사회의 변화</p> <p>4) 도시의 성장과 지중해 교역</p> <p>4. 몽골 제국의 등장과 교역망의 통합</p> <p>1) 몽골 제국의 성립과 발</p> <p>2) 몽골 제국의 교역망 통합과 동서 교류</p>	<p>1) 유럽 사회의 변화</p> <p>2) 지중해 교역권의 변화</p> <p>4. 몽골 제국의 성립과 동서 문화의 교류</p> <p>1) 몽골 제국의 성립</p> <p>2) 동서 교역망의 통합</p>	<p>3) 이슬람 세계의 교역</p> <p>4. 중세 유럽의 사회 변화</p> <p>1) 봉건 사회의 변화</p> <p>2) 봉건 사회의 위기와 중앙 집권 국가의 성장</p> <p>3) 새로운 변화의 태동</p>		
V	<p>1. 동아시아 사회의 성숙과 교역의 확대</p> <p>1) 명과 청의 발전</p> <p>2) 조선과 일본의 발전</p> <p>2. 동남·서아시아의 발전과 교역의 확대</p> <p>1)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발전</p> <p>2) 서아시아의 발전</p> <p>3. 유럽의 성장과 확대</p> <p>1) 근대 의식의 각성</p> <p>2)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과 크리스티교의 분화</p> <p>3) 절대주의의 성립과 발전</p> <p>4. 은의 유통과 세계 교역망의 통합</p> <p>1) 대서양 교역의 확대</p> <p>2) 세계적 교역망의 형성</p>	<p>1. 명·청 제국과 동아시아 세계의 성장</p> <p>1) 명·청 제국과 중화 질서</p> <p>2) 명·청대의 사회·경제와 문화</p> <p>3) 조선과 일본의 발전</p> <p>2. 이슬람 세계의 확대</p> <p>1)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p> <p>2) 인도의 무굴제국</p> <p>3) 오스만 제국</p> <p>3. 유럽 사회의 변화와 절대주의의 등장</p> <p>1) 인간 중심 사상의 부활</p> <p>2) 신헌료의 개척</p> <p>3) 절대 왕정의 성립과 발전</p> <p>4. 교류의 확대와 세계적 교역망의 형성</p> <p>1) 아시아 세계의 교역 확대</p> <p>2) 대서양 무역</p>	<p>1. 명·청 제국과 동아시아</p> <p>1) 명·청대의 정치와 사회</p> <p>2) 명·청대 경제 발전과 동서 교류</p> <p>3) 조선과 에도 막부</p> <p>4) 동아시아의 경제 변화</p> <p>2. 무굴 제국과 동남아시아의 발전</p> <p>1) 무굴 제국의 발전</p> <p>2)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발전</p> <p>3. 서아시아 전통 사회의 발전</p> <p>1) 티무르 제국과 사파비 왕조</p> <p>2) 오스만 제국의 발전</p> <p>4. 유럽의 새로운 변화</p> <p>1) 신헌료 개척과 유럽 사회의 발전</p> <p>2) 절대 왕정의 성립과 발전</p>	<p>4. 유럽 사회의 변화</p> <p>1) 르네상스</p> <p>2) 종교 개혁</p> <p>3) 신헌료의 개척과 유럽 사회의 발전</p> <p>4) 절대 왕정</p> <p>5) 세계 교역망의 통합</p>	<p>3. 유럽 세계의 팽창</p> <p>1)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p> <p>2) 신헌료의 개척과 유럽의 팽창</p> <p>3) 절대 왕정의 등장</p> <p>4. 세계 교역의 확장</p> <p>1) 유럽 교역망의 확장</p> <p>2) 세계 교역망의 통합</p>

* 데렉스트, 교학사, 금성출판사(4단원: 지역 경제의 성장과 교류의 확대/5단원: 지역 세계의 팽창과 세계적 교역망의 형성)/비상교육, 천재교육(4단원: 지역 세계의 통합과 세계적 교역망)

먼저, 단원 I은 <역사와 인간>이라는 주제로 내용 구성 또한 역사 학습의 의의와 세계사 학습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다. 단원 II의 경우, <도시 문명의 성립과 지역 문화의 형성>이라는 주제가 <문명의 성립과 통일제국>으로 바뀌면서 고대 동서양 문명의 형성과 발전을 개괄하고 있다. 단원 III은 <지역문화의 발전과 종교의 확산>이라는 단원명이 <지역 세계의 재편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바뀌면서 내용 구성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1년 검정본 단원 IV의 중국 송 대와 정복왕조 관련 내용이 단원 III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11년 검정본 단원 IV의 중세 유럽 관련 내용이 2013년 검정본에서는 단원 III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2011년 검정본 단원 IV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서 교역권의 형성과 변화(동아시아 교역, 몽골제국의 교역망, 인도양 교역, 지중해 교역, 아프리카 사하라 횡단 교역)’의 내용이 2013년 검정본에서는 단원 III의 ‘지역 세계 간의 교류와 발전’이라는 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2011년 검정본의 단원 IV(지역 경제의 성장과 교류의 확대), V(지역 세계의 팽창과 세계적 교역망의 형성)가 2013년 검정본에서는 단원 IV(지역 세계의 통합과 세계적 교역망)로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2011년 검정본 단원 V에 있던 ‘명·청 사회와 경제’ 내용이 2013년 검정본에서는 단원 IV에 배치되어 있으며, ‘세계 교역의 확장(아시아 세계의 변화와 교역, 아프리카 왕국과 교역, 대서양 교역, 세계 교역망의 통합)’ 관련 내용이 2013년 검정본에서는 ‘세계 교역의 확장(유럽 교역망의 확장, 세계 교역망의 통합)’으로 축소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특징은 종전보다 지역과 문명 사이의 교류와 교역에 대해 강조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의 흐름과 학계에서 새롭게 제기된 연구 경향을 교과서에 반영한 시도라 하겠다. 교통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2011년 검정본의 제4단원 <지역 경제의 성장과 교류의 확대>와 제5단원 <지역 세계의 팽창과 세계적 교역망의 형성> 두 개 단원은 단원 명 뿐만 아니라 내용 구성 역시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

동·서양 문명의 교류와 순환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체제 및 내용분석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두 개의 단원이 2013년 검정본에서 제4단원 <지역 세계의 통합과 세계적 교역망>으로 통합되었다는 점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세계사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으로 보았을 때,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라 하겠다.

Ⅲ. 세계사 교과서 내용 분석

분석 대상인 다섯 권의 세계사 교과서의 각 시대별·지역별 내용과 보조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필자의 역량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아시아·이슬람 세계·유럽 더 나아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을 연결하고 문명의 교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이슬람 상인의 교역활동과 몽골제국 지배하의 동서 교류, 신허로의 개척 이후 세계 교역망의 통합을 중심으로 분석 대상 세계사 교과서의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한다. 이에 따라, 동·서양 문명의 교류와 순환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자 하는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주목하는 것은 첫째, 문명의 전달자 역할을 했던 이슬람 세계와 몽고이다. 그 이유는 이슬람 세계는 문명의 전달과 수출을 동시에 수행한 반면, 몽고는 문명을 전달하는 중간자적인 역할만을 수행했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슬람 세계와 몽고가 동·서양 문명을 모두 직접 접촉한 집단으로서 동·서양 문명교류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둘째, ‘신허로의 개척’ 이후 유럽인들에 의해 주도된 세계적 규모의 교역망의 통합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이슬람 상인의 교역 활동

이슬람 세계는 동·서양 문명 교차의 중심으로 자체적으로도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중아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이슬람교를 전파시켰으며, 유럽과 동아시아 문명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했다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이슬람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통로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육로와 해로를 통한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하였기 때문에 중계 무역이 활발하였고 이를 통하여 동·서 문화와 경제 교류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분석 대상 교과서들은 모두 이 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출판사들마다 조금씩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5〉 이슬람 상인의 교역 활동 관련 서술 내용 비교

출판사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단원명	IV.3.3 이슬람 세계의 교역(p.168)	III.5.1 유라시아와 인도양 교역(pp.143-146)
서술내용	<p>“이슬람 제국은 자원이 풍부하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통로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해로와 육로를 통한 중계 무역이 활발하였다. 이슬람 대상들은 내륙 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까지 왕래하였고, 상선은 지중해는 물론 인도양에서 남중국해, 나아가서는 고려에까지 왕래하면서 해상 무역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비단, 향신료, 목재 등을 주로 거래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제지법, 나침반, 화약과 같은 중국 문물을 유럽에 소개하여 유럽의 과학 기술 발달에 큰 자극을 주었다.”(p.168)</p> <p>“(.....)아프리카는 7세기 이후 이슬람 상인들이 진출하면서 교역이 크게 발전하였다. 대상 무역을 통해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 등지에서 많은 이슬람 상인들이 들어왔고, 이들 중 일부는 북동부 아프리카에 정착하여 이슬람의 상업 문화를 전파하였다.”(p.169)</p>	<p>“사막길(비단길)이 가장 번성한 것은 7-8세기 중국 당 대였다. (.....) 이 시기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흥한 이슬람 세력은 이집트,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서아시아 일대에 제국을 형성하였다. 이슬람 제국은 육상과 해상의 교역로를 활발히 개척하여 동·서 문물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 시켰다.”(P.144)</p> <p>“이슬람 제국은 당과의 탈라스 전투(751)에서 승리하여 중앙아시아에 이슬람 세력의 기반을 굳혔고, 유목 민족들 사이에도 이슬람교가 퍼졌다. 또, 이 전쟁을 계기로 중국의 제지술이 이슬람 세계에 알려졌으며, 이어 유럽에도 전해졌다.”(P.145)</p> <p>“이슬람 상인들은 다우 선을 타고 여름 계절풍을 이용하여 인도양을 건너 인도로 간 다음,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로 항해하였고, 겨울 계절풍을 이용하여 되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서아시아의 양탄자와 유리, 인도의 면직물과 향신료, 동남아시아의 각종 향신료, 중국의 비단, 차, 도자기 등을 교역하였다. 또 이슬람 상인들은 동아프리카 연안의 도시 국가들을 장</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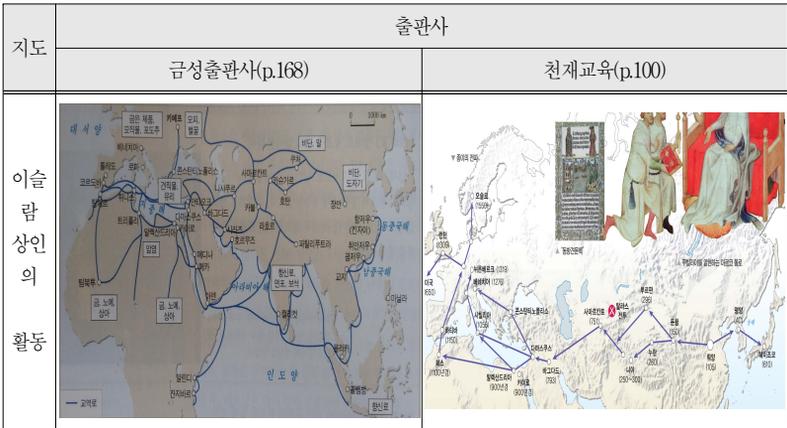
출판사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p>"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슬람 상인이 진출하고 이슬람교가 확산되면서 상업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 졌다. 10세기 후반부터는 (.....)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항구는 토착 상인과 이슬람 상인, 중국 상인들로 넘쳐 났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인기 높은 교역품은 향신료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후추와 육두구 같은 향신료를 거래하는 시장이 되었고, 인도 해안 지역 역시 염료, 후추, 비단 교역이 두드러졌다."(p.170)</p>	<p>악하고 아프리카 내륙의 상아, 황금, 노예 등을 인도양의 다른 지역 상품들과 교역하였다."(P.146)</p> <p>"소금과 황금 생산지와 사막의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교역로를 따라 도시들이 성장하였다. 이를 장악하기 위해 경쟁과 정복 활동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 여러 강력한 왕국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8-9세기 이후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사하라 횡단 교역은 지중해와 서아시아, 인도양 교역망과 연결되어 더욱 번성하였다."(P.147)</p>

<표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이슬람 대상들의 활동 영역이 지중해, 인도양, 남중국해, 나아가서는 고려에까지 왕래하면서 해상 무역을 주도하였고, 중국 문물을 유럽에 소개하여 유럽의 과학 기술 발달을 자극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물론 멀리 아프리카에까지 진출하여 이슬람 상업 문화를 전파한 사실을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더 알아보기> 코너에서는 별도로 제지법의 전파와 관련하여 ‘중이의 길(페이퍼 로드)’ 지도를 통하여 중국의 제지술(2세기 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슬람 세계(751, 탈라스 전투)와 유럽(12세기 중반)에 전파된 시기와 전파 경로를 ‘사마르칸트지’에 그려진 세밀화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¹⁰⁾ <더텍스트>의 경우 2쪽에 걸쳐 이슬람 상인의 활약을 인도양 교역과 사하라 횡단 교역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으며, <도움글>을 통해 중국과 이슬람 세계의 교역 내용을 보완하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교학사> 교과서는 5쪽을 할애하여 인도양 교역권에 포함되어 있는 이슬람 문화권, 힌두 문화권, 불교 및 유교 문화권과 그 교차지역을 지도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깊이 알기>와 <단

10) 김형중 외 5인, 『고등학교 세계사』, 금성출판사, 2013, p.169.

원 특집> 코너를 통해 정향, 후추, 계피, 육두구 등의 향신료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슬람 세계의 시장 ‘바자르’를 소개하고 있다. 2011년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3권의 교과서가 단원 IV에서 위의 내용을 언급한 반면, 2013년 검정본인 <천재교육>과 <비상교육>은 단원 III에서 이슬람상인들이 주도한 유라시아와 인도양, 지중해와 사하라 횡단 교역의 내용을 ‘몽골 제국과 교역망의 확장’을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천재교육>의 경우 동·서 교역로를 초원길, 사막길(비단길), 바닷길로 구분하여 교역망이 활발하게 이용된 시기와 교역품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깊게 알아보기> 코너에서는 다우 선을 이용한 인도양 교역 내용을 배의 그림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¹¹⁾, <비상교육> 교과서의 이슬람 상인 교역 활동에 대한 내용 서술은 2쪽 분량에 그치고 있어 가장 빈약하다.¹²⁾

<지도 1> 이슬람 상인의 교역 활동



11) 김덕수 외 7인, 『고등학교 세계사』, 천재교육, 2014, p.146.

12) 조한옥 외 인, 『고등학교 세계사』, 비상교육, 2014, pp.102-103.

2) 몽골 제국 시기 동서 교류 및 교역

칭기스칸은 1206년 몽골 유목민을 통합하고 “대몽골 울로스(Yeke Mongol Ulus)”를 건설하였다. 그의 후손들은 유라시아 전역을 점차 통일하여 거대한 유목제국으로 만들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대몽골 울로스(Ulus)는 유라시아의 초원지대와 농경지대를 모두 아우르는 ‘세계제국’으로 발전하였다. 몽골 제국의 영토적 팽창은 몽골에 의한 평화를 일컫는 소위 ‘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라는 하나의 통일된 세계 질서를 만들어냈다. 몽고의 유럽 원정은 동·서양 문명 모두에게 돌발적인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동·서양 문명의 본격적인 접촉을 야기 시킨 사건이었다. 몽골은 문명(문화)의 창조자라기보다는 동·서양 문명의 장점을 수용하고 서로에게 전파한 전달자로서 그 역사·문화적으로 차지하는 의미가 지대하다.¹³⁾

〈표 6〉 몽골제국 시기 동서 교류 및 교역 서술 내용 비교

출판사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단원명	IV.22 몽골 제국의 동서 교류	Ⅲ.1.4 원 제국 Ⅲ.5.3 몽골 제국과 교역망의 확장
서술내용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한 뒤 몽골은 원활한 통치를 위해 제국 전체에 역참을 설치하였다. 역참망의 형성으로 몽골 대칸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말과 마차, 식량 및 수소를 제공받으며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	“원 대에는 초원길, 사막길(비단길), 바닷길이 모두 활짝 열렸다. 당 후기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 바닷길은 송 대를 거쳐 원 대에 더욱 번성하였다. 광저우, 항저우, 취안저우 등에는 시박사가 설치되어 관세를 거두었다. 원 대에 초원길, 사막길(비단

13) 국내에서는 몽고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 고려시대의 정치사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명의 전달자로서의 몽고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 몽고의 유럽원정에 대한 연구는 이미 유럽에서는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연구의 주제들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그나마도 대부분 연대기적인 서술에 불과하다. 이렇듯 유럽과 한국에서의 몽고연구가 미약한 이유는 유럽과 중국의 문헌적 비교 고찰이 미진했고, 침략자라는 인식이 몽고가 이뤄낸 역사적·문화적 업적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판사	금성출판사	친재교육
	<p>절이나 관리 등 공무 인원의 여행과 물자 운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신속한 공문서 전달도 가능해져 제국 전역에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강남의 곡물을 대도로 운반하기 위한 대운하도 수리되어 항저우에서 대도까지 수로가 연결되었고, 해운도 편리해져 수백 만 석의 곡물이 운송되었다“(p.158)</p> <p>“몽골 제국은 육로와 해로를 통해 만들어진 교통로를 이용하여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적극적인 상업활동에 나섰다. 유목민의 군사력과 바다와 육지의 비단길을 연결하는 상인의 활동이 결합하면서 동서를 연결하는 교역망은 크게 확장되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해상 무역도 더욱 발전하여 항저우, 취안저우, 광저우 등 항구 도시가 계속 번영을 누렸다.”(P.159)</p> <p>“몽골이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이 형성되고, 이제까지 없었던 활발한 인적 교류와 이동이 이루어지자 각 지역의 문화 역시 자연스럽게 교류되었다. (.....) 이러한 교류를 통해 중국의 역사와 학문이 이슬람권에 전파되었고, 송 대에 발명된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서양에 전파되었다. 이슬람 천문학과 수학 등이 중국에 전해진 것도 이때였다. 원 대의 과학은 이슬람 역법의 영향을 받아 수시력을 만들었고, 라시드 앳딘은 <집사>라는 역사서를 편찬하였는데, 이 책은 ‘최초의 세계사’라 일컬어지고 있다.”(P.159)</p>	<p>길, 바닷길이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교역망이 완성되었다.“(p.100)</p> <p>“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질서 속에 편입하여 문물의 교류를 증진시켰다. (.....) 제국 통치를 위해 역참제를 시행하였다. 역참은 제국 전체에 일정한 간격으로 역사를 세우고 병사와 말을 배치시켜 공무를 띠고 왕래하는 관리에게 편의와 숙식을 제공하는 제도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이동과 물자 수송이 원활히 이루어졌고 중앙의 명령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었다. (.....) 몽골 제국 초창기부터 특히 이슬람 상인들의 교역 활동이 두드러졌다. 끊어졌던 사막길(비단길)이 이어졌고, 각 지역의 상공업이 활기를 띠었으며, 육로와 해로를 통한 동서 교류가 더욱 번성하였다.(P.150)</p> <p>“몽골 제국의 지배로 유라시아 대륙의 육지와 바다의 교역망은 서서히 하나로 통합되었다.(.....) 유라시아 일대의 동서 교류가 발달하자 인도, 서아시아, 유럽 등 각 지역의 물자 교류 뿐 아니라 학자와 선교사들의 왕래로 학문과 종교, 문화의 교류도 활발하였다.(.....) 이처럼 몽골 제국의 지배 시기에 동아시아 교역망, 인도양 교역망, 중앙아시아 교역망이 연결되고, 더 나아가 아라비아 반도와 동아프리카, 지중해와 서유럽 교역망까지도 연결되는 거대한 아프로-유라시아 교역망으로 확장되었다.“(p.151)</p>

분석 대상인 5종의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는 몽골의 성장으로부터 대제국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원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징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첫째, 원제국의 정치적 변천에 대해서는 칭기즈칸의 몽골제국 건국, 몽골의 세계원정, 쿠빌라이 칸의 원 제국 건설과 중국 지배, 4 칸국의 성립, 고려 복속과 일본 원정 등이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둘째, 몽골 유목민족의 문화와 관련해서는 몽골 제일주의와 민족 차별 정책, 종교적 관용과 파스파 문자의 사용, 라마교의 발전, 다민족 문화 융합 등에 대한 서술이 두드러진다. 셋째, 몽골 제국과 동서 문화의 교류에 대해서는 육상무역과 해상무역의 발전, 이슬람 과학의 중국 전래, 역전제 실시,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 인쇄술의 서양전래, 마르코 폴로와 이븐 바투타의 중국 여행기 등이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몽골 제국과 동·서 문화의 교류 내용을 교과서 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더텍스트>는 몽골 제국의 건설로 교역망이 통합되고 단일 화폐 경제권이 형성된 사실과 몽골 제국 내에서 동·서 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이슬람 문화가 동아시아와 유럽에 끼친 영향을 서술하고 있으며 ‘탐구학습’란에서는 몽골의 역참제도를 제시하고 있다.¹⁴⁾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몽골이 세계 제국을 건설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원 제국이 동·서 문화에 끼친 영향을 마르코 폴로와 이븐 바투타의 기록을 <자료 1, 2>에 제시하여 원 대의 동·서 교류를 나타내는 지도와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¹⁵⁾ <교학사> 교과서는 세계 각 지역에서 형성된 교역망이 몽골 제국의 성립으로 통합된 사실과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경제권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민족의 교류와 문화의 다양성이 촉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료읽기> 코너에서는 원 대의 화폐 정책과 대외 교역 정책을 <원사>의 인용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¹⁶⁾

14) 강택구 외 5인, 『고등학교 세계사』, 더텍스트, 2011, p.133.

15) 김형중 외 5인, 『고등학교 세계사』, 금성출판사, 2013, p.160.

16) 최상훈 외 7인, 『고등학교 세계사』, 교학사, 2013, p.148.

2013년 김정본인 <천재교육>과 <비상교육>은 단원 III에서 몽골 제국을 다루고 있는데 두 교과서 모두 <탐구활동>과 <깊게 알아보기> 코너에서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를 소개하고 있으며, 몽골 제국 시기 동·서 교류의 내용을 각각 1, 2쪽 분량으로 요약해서 유라시아 교역망 지도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¹⁷⁾

<지도 2> 몽골 제국 시기 교역로 지도 비교

지도	출판사	
	금성출판사(p.160)	천재교육(p.151)
원 대의 동서 교류		

몽골은 역사 교과서에만 남아있는 역사 속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북방민족 중 유일하게 실체가 남아있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과서는 몽골을 역사 속의 국가로만 취급하고 있다. 세계사 교과서 모두 부록으로 7~10페이지 분량의 역사 연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24년 몽골 공화국의 성립이나 1990년 한·몽 수교, 수교 이후의 경제 교류와 자원협력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결국, 한국 <세계사> 교과서 속의 몽골은 원제국의 몰락과 함께 기억 속

17) 김덕수 외 7인, 『고등학교 세계사』, 천재교육, 2014, p.151; 조한욱 외 5인, 『고등학교 세계사』, 비상교육, 2014, p.89.

동·서양 문명의 교류와 순환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체제 및 내용분석에서 사라진 역사 속의 제국에 그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3) 신행로의 개척과 교역망의 세계적 확대

신행로의 개척은 중세 초기부터 시작된 '아시아-이슬람 위주'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유럽 중심으로 바꾼 계기가 되었다. 신행로의 개척으로 유럽인들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유럽을 벗어나 각지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아시아와 이슬람 세력을 꺾고 주도권을 잡게 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다. 유럽과 비유럽 문화권의 접촉 과정에서 유럽의 팽창이 비유럽 지역에 준 충격과 영향은 문화 교류의 불균형과 문화 소통의 일방성이 심화되어가는 가운데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나타났다.

신행로의 개척과 그 이후 나타나게 된 세계 교역망의 통합에 대해서 분석 대상 5종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술하고 있다. 첫째, 신행로의 개척 이전의 세계 교역망은 인도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동쪽으로는 동아시아지역, 서쪽으로는 지중해 지역까지 퍼져있었다. 둘째, 유럽인들에 의해 신행로가 개척되면서 새로운 교역망이 대서양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셋째, 신행로의 개척 이후 유럽은 아프리카 해안, 인도 남부 해안, 동남아시아 등지에 무역 거점을 확보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장악하면서 대서양 무역을 확대하였다. 넷째, 유럽인들은 대서양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메리카의 은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다섯째, 유럽인들의 활동으로 아메리카의 은이 유럽을 거쳐 중국으로 흘러들어갔고, 점차 은을 매개로 한 세계적 교역망이 형성되어 갔다.

〈표 7〉 신행로의 개척과 교역망의 세계적 확대

출판사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단원명	V.1.4 동아시아의 경제 변화 V.4.1 신행로의 개척과 유럽 사회의 발전	IV.4.1 유럽 교역망의 확장 IV.4.2 세계 교역망의 통합

<p>서술 내용</p>	<p>“동아시아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차, 비단, 생사, 면직물, 도자기 등이 대량으로 동남아시아와 유럽에 수출되었다. 유럽은 신대륙의 은을 그 대금으로 지불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은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은의 유통이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는 크게 팽창하였고, 은 경제가 확립되었다.”(P.208)</p> <p>“대서양 연안에 위치하여 지중해 무역에서 불리했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신항로 탐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에스파냐 여왕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였고(1492), 포르투갈의 바스쿠 다 가마는 희망봉을 돌아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하였다(1498). 마젤란은 대서양을 횡단하고 신대륙 남단과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에 도착하였으나 원주민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그러나 그의 일행은 항해를 계속하여 인도양과 희망봉을 거쳐 3년 만에 에스파냐로 돌아갔다(1522). 이는 최초의 세계 일주였으며, 이로써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P.223)</p> <p>“유럽 경제의 중심도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대서양을 무대로 삼각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유럽 중심의 세계 경제 체제가 성립하였다. 대서양 연안의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해상 진출에 나섰고,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만들었다.”(P.226)</p>	<p>“포르투갈은 유럽을 소위 ‘대항해 시대’로 이끌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서부와 동부 해안에 거점을 확보하고 인도 서남부 해안의 캘리컷, 코친, 고아 등을 점령하여 무역기지로 삼았다. 이어서 동서 바다길의 중심지인 플라카 해협을 장악하고 동남아시아로 진출하였다. 포르투갈은 인도의 고아, 서아시아의 호르무즈, 동남아시아의 플라카를 3대 거점으로 삼아 해상 무역권을 장악해 갔다.”(p.189)</p> <p>“이스테카와 잉카를 정복한 에스파냐는 그들의 금·은을 약탈하고 원주민을 강제 동원하여 금광, 은광 개발에 몰두하였다. 볼리비아의 포토시와 멕시코의 사카테카스에서 대량의 은이 생산되었고, 유럽으로 운반되었다.”(p.190)</p> <p>“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인들의 교역은 지중해에서 점차 대서양으로 확대되었다. (.....) 이처럼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대서양 교역권이 성장하면서, 유럽은 아메리카에서 대량의 은을 약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와 아메리카의 상품 작물 플랜테이션을 연결하는 삼각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그 이윤을 바탕으로 아메리카 식민지를 지배하고 유럽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p.191)</p> <p>“유럽이 무력을 앞세워 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이슬람 상인과 인도-중국 상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동서 교역망의 주도권은 유럽인들에게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유럽인들은 대서양무역에서 축적한 이윤을 바탕으로 아시아와의 직접 교역을 확대해 나갔고, 그 결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물품들이 서로 교역되면서 세계 전 대륙이 연결된 세계 교역망을 형성하게 되었다.”(p.193)</p>
------------------	--	---

그렇다면 개별 교과서에 나타난 신항로의 개척을 전후로 한 변화 양상에 대한 서술 내용은 어떻게 다르게 서술되어 있을까? 먼저, <더텍스트>는 신항로의 개척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을 아메리카의 식민화, 아프리카

동·서양 문명의 교류와 순환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체제 및 내용분석

흑인노예 무역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인물과 역사> 코너에서도 에스파냐의 정복자 코르테스와 피사로에 의한 아즈텍 문명과 잉카 문명의 파괴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¹⁸⁾ 또한 유럽인들이 주도한 세계 교역망의 통합과 아메리카의 은이 유럽을 거쳐 중국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지도로 표시하고 있다.¹⁹⁾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유럽 세력이 신대륙에 침투하면서 아메리카 문명이 붕괴되는 과정과 유럽인에 의한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전개, 세계 경제의 출현을 서술하면서 <교류와 만남> 코너에서는 유럽인들에 의해 아메리카로 건너간 각종 전염병으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²⁰⁾ 아울러 <더 알아보기>에서는 신항로의 개척 이전과 이후 세계 무역의 변화를 두 장의 지도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신항로의 개척 이후 대서양이 새로운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세계의 교역망이 은을 매개로 통합되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도움학습>란에서는 대서양 무역이 아메리카에 가져온 변화로 백인, 아메리카 원주민, 아프리카 흑인 간의 인종 혼혈 및 아메리카 은의 유통 경로를 알려주는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2011년 검정본과는 달리, 2013년 검정본 <천재교육>과 <비상교육> 교과서는 ‘신항로의 개척과 유럽의 팽창(단원 IV.4.3)’이 중단원 3에서, ‘세계 교역망의 확장(단원 IV.4.1-2)’ 내용이 중단원 4로 분리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신항로의 개척과 관련하여 <천재교육>은 콜럼버스, 아메리고 베스푸치, 마젤란, 바스쿠 다 가마 등 유럽의 항해자들의 초상화와 항로가 표시된 세계지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 교역망과 관련해서는 <주제로 보는 역사> 코너에서 2쪽 분량으로 ‘도자기와 세계 교역망’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와 유럽산 도자기 상품 사진을 소개하고 있다. <비상교육>은 신항로의

18) 강택구 외 5인, 『고등학교 세계사』, 더텍스트, 2011, p.167.

19) 같은 책, p.170.

20) 김형중 외 5인, 『고등학교 세계사』, 금성출판사, 2013, p.224.

개척 과정에서 야기된 유럽인에 의한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 교역망의 통합’ 관련해서는 대서양이 삼각무역을 서술하면서 <더 알아보기> 코너를 통하여 ‘죽음의 중간 항해와 노예선’이라는 주제로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약 1,200만 명의 흑인이 아메리카에 노예로 팔려갔음을 노예선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지도 3> 신항로의 개척 이후 세계의 교역망 지도 비교(금성출판사/천재교육)

지도	출판사	
	금성출판사(p.226/p.208)	천재교육(p.188/p.193)
신항로의 개척	<p>신항로 개척 이후 세계 무역</p> <p>신항로 개척으로 시작된 대서양 교역망은 아메리카 동안 해안에서 아프리카 서안 해안으로 이어지는 해상 무역로로 발전하였다. 유럽에서 생산된 상품과 아프리카에서 대량으로 수입된 노예를 운반하는 해상 무역로로 성장하였다. 대서양 교역망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무역로로 발전하였다. 유럽에서 생산된 상품과 아프리카에서 대량으로 수입된 노예를 운반하는 해상 무역로로 성장하였다. 대서양 교역망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무역로로 발전하였다.</p> <p>【신항로 개척 전후의 무역 변화】</p> <p>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된 상품(금, 은, 면직물 등)은 대서양을 통해 유럽으로 운반되었다. 유럽에서는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직물, 농기구 등)은 대서양을 통해 아메리카로 운반되었다. 대서양 교역망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무역로로 발전하였다. 유럽에서 생산된 상품과 아프리카에서 대량으로 수입된 노예를 운반하는 해상 무역로로 성장하였다. 대서양 교역망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무역로로 발전하였다.</p>	<p>신항로 개척 이후 세계 무역</p> <p>신항로 개척으로 시작된 대서양 교역망은 아메리카 동안 해안에서 아프리카 서안 해안으로 이어지는 해상 무역로로 발전하였다. 유럽에서 생산된 상품과 아프리카에서 대량으로 수입된 노예를 운반하는 해상 무역로로 성장하였다. 대서양 교역망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무역로로 발전하였다. 유럽에서 생산된 상품과 아프리카에서 대량으로 수입된 노예를 운반하는 해상 무역로로 성장하였다. 대서양 교역망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무역로로 발전하였다.</p> <p>【신항로 개척 전후의 무역 변화】</p> <p>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된 상품(금, 은, 면직물 등)은 대서양을 통해 유럽으로 운반되었다. 유럽에서는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직물, 농기구 등)은 대서양을 통해 아메리카로 운반되었다. 대서양 교역망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무역로로 발전하였다. 유럽에서 생산된 상품과 아프리카에서 대량으로 수입된 노예를 운반하는 해상 무역로로 성장하였다. 대서양 교역망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무역로로 발전하였다.</p>
은의 유통	<p>은의 유통</p> <p>은의 유통</p> <p>은의 유통</p>	<p>은의 유통</p> <p>은의 유통</p> <p>은의 유통</p> <p>은의 유통</p>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슬람 상인들의 교역활동과 몽골 지배하의 동·서 교역망의 확대에 대해서는 교과서 집필자들이 긍정적인 서술을 하고 있지만, 신항로의 개척 이후 서양인들에 의해 주도된 세계 교역망의 통합 과정은 침략, 약탈, 파괴, 착취, 노예, 지배, 전염병 등 비유럽 지역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들이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서양 문명의 교류와 순환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체제 및 내용분석

또한, 2013년 검정본과 같이 대단원 안에 교류사와 관련된 별도의 중단원을 편성할 경우 해당 지역사의 일부 내용이 중복 서술될 가능성이 있다. <천재교육>의 경우, ‘아프로-유라시아 교역망의 통합 단원의 일부 내용과 몽골 역사를 서술하는 부분에서도 ’동서 교역망의 통합‘이라는 제목 하에 <표 8>과 같이 동일한 내용이 서술된 사실을 알 수 있다.²¹⁾

<표 8> 서술 내용의 중복

천재교육	서술내용	쪽수
몽골 제국과 교역망의 확장 (단원 III.5.3)	수학과 천문학, 의학, 과학 등의 교류도 활발하여 학문이 발달하였으며, 제지술, 인쇄술, 나침반 등의 기술도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중국에서는 이슬람 역법을 참고하여 수시력을 만들기도 하고 이슬람 의학을 권장하는 기구도 설립하였다.	P.151
원 제국 (단원 III.1.4)	동서 교역망을 통해 중국의 화약, 나침반, 인쇄술 등이 서양에까지 전파되었고, 반대로 이슬람 세계의 천문, 역법, 수학, 의학 등이 중국으로 들어와 과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슬람 역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수시력은 중국의 달력의 정확도를 한층 높였다.	P.100

IV. 맺음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동·서양 문명의 교류와 순환성에 입각한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서술체제와 내용분석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적으로 고립된 동·서양 문명이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던 상호작용과 동·서양 문명의 발전에 대한 핵심적인 배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명과 문명 간의 교류와 순환적 가치가 갖는 의미는 단지 문명의 수용

21) 신유아, 앞의 논문, pp.101-103.

과정과 이를 변용시켜 토착화시키는 과정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문명의 교류는 문명 간에 상호작용을 야기시키면서, 각 지역 사회와 역사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문명의 전파와 교류적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흡수되고 혼용된 요소들은 언어, 종교, 관습, 과학, 제도, 이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이질적인 요소들은 토착화 되어 각 문명 속에 용해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이질적 문명 요소였다는 인식이 사라져간다. 따라서 토착화된 이문명적인 요소들도 지역문명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연구되어왔다. 간단히 예를 들면, 북유럽 게르만의 신화와 고유종교 또는 서양의 기독교와 동양의 불교 등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즉, 문명의 전파와 수용을 통해 이뤄진 문화적인 영향과 상호작용은 각 지역문명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문명들은 서로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상호 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문명과 문화의 발전에서 중요한 키워드인 “교류”와 “순환성”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한국 학계의 현실에서 역사 속에 존재했던 혹은 존재하는 문명들을 전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문명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류의 역사와 교역로, 교통망에 대한 서술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²²⁾

하지만, 2011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2013년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세계사 교과서(천재교육, 비상교육)는 2011년 검정본 교과서(더텍스트, 금성출판사, 교학사)에 비해 단원이 줄어들었고, 교과서 내용 분석에서 살펴 본

22) [부록 1] 분석 대상 5종 교과서의 시대별 교역로(육로와 해로) 관련 지도 비교표 참조.

동·서양 문명의 교류와 순환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체제 및 내용분석

바와 같이 지역과 문명의 교류와 통합 관련 내용도 축소되었다. 더욱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안)의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과정에는 총 6개 단원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현행 교과서의 7개 단원에서 1개가 더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세계사 교과목의 성격을 ‘동아시아 지역, 서아시아·인도 지역, 유럽·아메리카 지역이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는 과정을 다루고, 이어 이들 지역이 교역망의 전 지구적 확대를 통해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됨으로써 겪게 되는 변화를 탐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세계사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에도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했던 ‘지역과 문명 사이의 교류와 교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²³⁾ 다만, 단원 IV(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의 중단원 3(유럽 세계의 변화)에 ‘신항로의 개척’, ‘유럽 교역망의 확장’정도가 보일 뿐이다. 교육부가 밝힌 세계사 교과서 내용 체계를 보면, 교역망의 전 지구적인 확대를 통해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된 시대를 제국주의 시대로 상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제국주의 이후 시대의 역사는 지역을 초

23) 교육부가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안) 세계사 교과서 내용 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대주제	소주제
인류의 진화와 문명의 탄생	세계사 학습의 필요성
	인류의 진화와 선사 문화
	문명의발생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서아시아·인도 지역의 역사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과 이슬람 세계의 형성
	인도의 역사와 다양한 종교·문화의 출현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고대 지중해 세계
	유럽 세계의 형성
	유럽 세계의 변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제국주의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제국주의와 민족운동
	두 차례의 세계대전
현대 세계의 변화	냉전과 탈냉전
	21세기의 세계

월하여 통합된 세계사를 내용 체계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안)에 의거하여 제국주의 이전의 세계사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 지역이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지역사를 서술할 때, ‘지역과 문명사이의 교류와 교역’ 관련 내용은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주제어 : 동양, 서양, 문명, 교류,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체제, 내용분석, 이슬람, 몽골제국, 지리상의 발견

(논문투고 : 2015.12.2 / 논문심사완료 : 2015.12.13 / 논문게재 확정일 : 2015.12.15)

[부록 1] 분석 대상 5종 교과서의 시대별 교역로(육로와 해로) 관련 지도 비교표

교과서		출판사				
		더텍스트(2011)	교학사(2013)	금성출판사(2013)	비상교육(2014)	천재교육(2014)
단 원 구 분	I					<세계사 연구 보고서 작성하기(항로, 여행길)>(p.29)
	II	<불교의 전파>(p.37) <로마의 도로망>(p.50)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동 경로>(p.61)	<동서 문화의 교류>(p.59) <헬레니즘 시대의 경제 교류>(p.60)	<고대 세계의 주요 동서 교역>(p.34-35) <비단의 서방 전과 길>(p.55) <불교의 전파 경로>(p.60) <2세기경의 인도 교역>(p.61) <고대 동남아시아 세계(해로)>(p.62) <고대 오리엔트 세계의 통일 제국(왕의 길)>(p.66) <스키타이 유목 기마 문화(초원길)>(p.68) <로마 제국의 교역>(p.82) <포이팅거 지도>(p.85)	<진의 중국 통일(도로망)>(p.41) <한의 영역과 장건의 이동 경로>(p.42) <초원길과 비단길>(p.47) <불교의 전파 경로>(p.49) <고대 동남아시아의 교역>(p.51)	<진·한 제국의 영역(장건의 여행로)>(p.51) <고대 인도와 서아시아 세계의 발전(왕의 길)>(p.54) <간다라 미술의 전파>(p.57) <알렉산드로스의 원정과 알렉산드리아(원정로)>(p.66) <불교의 세계 전파>(p.74)
	III	<수의 대운하>(p.69) <6-7세기 무렵의 아프리카>(p.80) <지도로 파악하기: 지도를 통해 각 지역 문화권의 형성과 교류를 이해해 보자>(p.94)	<윤하(수나라)>(p.71) <당 중심의 유라시아 교통로>(p.75) <제지술의 전파 경로>(p.79) <석굴 사원, 불교와 함께 중앙아시아, 동아시아로 퍼져 나갔다>(p.84-85) <해초가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한 경로>(p.89)	<7,8세기경의 세계>(p.92-93) <통일의 불길, 대운하>(p.97) <장안 중심의 유라시아 교통로>(p.99) <8세기 동아시아 사신 행로>(p.103) <7-9세기의 동남아시아(교통로)>(p.109) <6세기 교역로의 변화(이슬람)>(p.113)	<인구 이동로(북방민족)>(p.75) <수의 영역과 대운하>(p.77) <당의 해외 교역>(p.79) <법현과 현장의 구법 활동>(p.81) <송의 대외 교역>(p.85) <몽골 제국(원정로)>(p.87) <원대의 동서 교통로>(p.89) <7-9세기 동남아시아(교통로)>(p.93) <교역로의 변화(이슬람)>(p.95) <이슬람 상인들의 활약>(p.103) <십자군의 원정로>	<비단길·바닷길>(p.91) <송 대 상공업의 발전(교통로)>(p.94) <송의 전파>(p.100)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전파(경로)>(p.104) <6세기경 교역로의 변화>(p.107) <아프리카와 인도 의 이슬람 세력>(p.113) <십자군 전쟁(원정로)>(p.128) <지역 세계 간의 교류와 발전>(p.142) <초원길·비단길·바닷길>(p.145) <사하라 횡단 교역>

교과서	출판사				
	더텍스트(2011)	교학사(2013)	금성출판사(2013)	비상교육(2014)	천재교육(2014)
IV				(p.115) <중세 유럽의 교역> (p.116)	로>(p.147)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개된 교역(교통로)>(p.148) <아프로-유라시아 교역망의 통합>(p.151)
	<동아시아 교역권>(p.106) <이븐 바투타의 여행로>(p.111) <인도양 교역>(p.114) <사하라 횡단 교역권>(p.115) <유럽 교역권>(p.128) <동서 교역로(몽골 제국)>(p.134) <지도로 파악하기: 지도를 통하여 몽골 제국의 교역망을 알아보자>(p.136)	<송 대의 동아시아 교역>(p.122) <인도양 교역>(p.128) <사하라 교역>(p.131) <지중해 교역권>(p.141) <마르코 폴로와 이븐 바투타의 여행로>(p.147) <신드바드가 되어 항해 일기 써 보기>(p.152)	<13,14세기경의 세계(교역권)>(p.142-143) <송 대 상공업과 교역의 발전>(p.147) <동아시아 해상 무역>(p.152) <14세기 동아시아 해상 교역>(p.158) <원대의 동서 교류>(p.160) <이슬람 상인의 활약>(p.168) <제지법의 전파>(p.169) <지중해와 북아프리카에서의 교역(11세기경)>(p.169) <인도양 교역권>(p.170) <중세 유럽의 상업과 교통로>(p.176)	<명·청 시대의 상업>(p.135) <에도 막부 시기 산업의 발달과 조닌 문화(가도, 통신사)>(p.138) <정화의 대항해>(p.139) <일본의 해외 교역>(p.140) <16-18시기의 세계 은 유통>(p.141) <신항로 개척>(p.160) <대서양의 삼각 무역>(p.166) <아메리카 은의 유통과 그 영향>(p.167)	<명의 최대 영역과 정화의 항해로>(p.157) <티무르 왕조의 영역(원정로)>(p.170) <유럽 세계의 팽창(항로)>(p.178) <신항로 개척의 배경>(p.182) <세계 교역의 확장>(p.188) <대서양 삼각무역>(p.191) <아메리카 은의 유통과 그 영향>(p.193) <새로운 세계의 탐험가들을 만나다>(p.197)
	<정화의 대항해>(p.141) <동남아시아의 화교 분포>(p.142) <신항로 개척>(p.165) <삼각무역>(p.168) <16-17세기 세계 은의 유통>(p.170) <지도로 파악하기: 지도를 통해 각 지역의 교역망을 알아보자>(p.172)	<정화의 항해로와 명 중심의 조공 절서>(p.157) <에도 막부 시대의 일본(조선 통신사)>(p.164) <신항로의 개척>(p.178-179) <류큐 왕국의 무역 전개>(p.188) <이슬람 세계의 동사무역 장악>(p.189) <아메리카 은의 유통과 그 영향>(p.191) <중국으로 유입되는 세계의 은>(p.192)	<16,17세기경의 세계(교역망)>(p.194-195) <정화의 원정>(p.198) <명·청대의 산업>(p.207) <동아시아 교역권의 형성>(p.207) <16,17세기 세계 은의 유통>(p.208) <17세기 동남아시아의 해상 무역과 유럽인의 진출>(p.213)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활동>(p.215) <신항로의 개척>(p.223)		

동·서양 문명의 교류와 순환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체제 및 내용분석

교과서		출판사				
		더텍스트(2011)	교학사(2013)	금성출판사(2013)	비상교육(2014)	천재교육(2014)
교통 지도			<커피의 주요 생산지와 소비지>(p.195) <우리가 따라갈 통상사의 여정>(p.196)	<신항로 개척 이후 세계 무역>(p.226) <대서양 삼각 무역>(p.231)		
	VI	<신항로 개척 이후 무역 관계>(p.182) <미국의 대륙 횡단 철도 확산>(p.186)	<미국 영토의 팽창(철도)>(p.219)	<세계의 공장 영국(수출입)>(p.271) <미국의 철도>(p.273)	<제국주의 세력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침략(영국의 무역로)>(p.214) <청·일전쟁(이동 경로)>(p.224) <러·일 전쟁(진로)>(p.225)	<청·일 전쟁의 전개 과정(진로)>(p.256) <열강의 중국 내 세력 범위(철도)>(p.260) <수에즈 운하 개통 전후 무역로의 변화>(p.272)
	VII	<개항기의 중국(진로)>(P.225) <신해협명의 전개(철도이권)>(P.227) <청·일 전쟁의 전개(진로)>(p.229) <수에즈 운하 개통 이후의 항로 이용 빈도>(p.239)	<태평천국 운동(진로)>(P.249) <영국의 침략과 수에즈 운하>(p.272)	<중국의 문호 개방(진로)>(p.297) <태평천국 운동(진로)>(P.298) <수에즈 운하 개통 전후 무역로의 변화>(p.321)		<대중 사회의 출현과 세계화(여행자수)>(p.312)
	VIII	<북벌과 대장정>(p.232)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액>(p.269)				
교통 지도	27	25	40	28	30	

참고문헌

1. 분석대상 교과서

- 강택구 외 5인, 『고등학교 세계사』, 더텍스트, 2011.
김덕수 외 7인, 『고등학교 세계사』, 천재교육, 2014.
김형중 외 5인, 『고등학교 세계사』, 금성출판사, 2013.
조한욱 외 5인, 『고등학교 세계사』, 비상교육, 2014.
최상훈 외 7인, 『고등학교 세계사』, 교학사, 2013.

2. 단행본

- 이옥순 이종득 이태주 이평래 이희수 조홍국 한건수,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찬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 삼인, 2009.

3. 논문

- 강선주, 「세계화시대의 세계사교육: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한 내용구성」, 『역사교육』 82, 2002.
강선주, 「문화적 접촉과 교류의 역사」의 내용선정 방안」, 『역사교육연구』 3, 2006.
강선주, 「유럽중심주의 담론을 통해 본 역사교육의 과제」, 『역사교육』 131, 2014.
강철구, 「한국에서 서양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 유럽중심주의의 극복을 위한 제언 -」, 『서양사론』, 제92호, 2007.
구난희, 「세계사 교육과정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역사교육』 제93집, 2005, pp.109-141.
김원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세계사 글로벌 히스토리(Global History)

동·서양 문명의 교류와 순환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체제 및 내용분석

와 역사들의 지평을 넘어서」, 『서양사론』, 제92호, 2007.

김원수, 『역사교육의 전지구적 전환: 새로운 세계사의 전개』, 『역사교육연구』 15, 2012.

김한식, 「고등학교 세계사교육에서 문화권 학습을 위한 구상」, 『역사교육논집』, 제12집, 1988.

남철호, 『‘글로벌 히스토리(Global History)’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세계사』, 『계명사학』 22, 2011.

박혜정, 『하나의 지구, 복수의 지구사』, 『역사학보』 214, 2012.

신유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내용구성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역사교육논집』 제54집, 2015.

양호환, 『역사교과서의 서술과 유럽중심주의』, 『역사교육』 117, 2011.

윤용혁·문경호, 「사회 교과서 속의 몽골 관련 서술 -중,고등학교 사회,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몽골학』 제31권, 2011, pp.121-157.

이영호, 『세계사교육에서 ‘타자읽기’: 서구중심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를 넘어』, 『역사교육』 86, 2003.

임지현, 『‘지구사’연구의 오늘과 내일: ‘지구적 차원에서 지구사를’ 학술대회를 다녀와서』, 『역사비평』 83, 2008.

정선영, 『지구적 시각에 기초한 세계사 교육에의 접근방안』, 『역사교육』 85, 2003.

조지형, 『새로운 세계사와 지구사: 포스트모던 시대의 성찰적 역사』, 『역사학보』 173, 2002.

An analysis on the describing system and contents in korean high school <World History> textbooks

Park, Jae-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 analysis on the describing system and contents of korean high School <World History> textbooks in sight of the exchange and circulation of civilizations between Eastern and Western. The researcher selected five kinds of high school <World History> textbooks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This includes textbooks approv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August 2011 August 2013.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scribed contents and configuration sections of the <World History> textbooks.

In fact, one kinds of unusual worth, textbook writers have a positive narrative about trade activity of Muslim merchants and the expansion of trade networks between Eastern and Western under the Mongol domination. However, since the pioneering of new routes, describing about the integration of the global trade network led by Westerners is negative, such as aggression, plunder, destruction, exploitation, slavery, domination, plague.

Current high school <World History> description of the trade routes, transportation network of exchanges connecting civilizations can be called encouraging. Information on the exchange and circulation of

동·서양 문명의 교류와 순환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체제 및 내용분석

civilization in high school world history textbooks will be reduced, because a total of six sections are presented in high school world history curriculum of revision 2015.

Key Words : Eastern, Western, civilization, exchanges, high school, world history, textbook, describing system, content analysis, Islam, Mongol Empire, the discovery of geography

